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부활주일예배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님께 영광(찬155/새165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정낙성 집사 2부/최주상 장로 3부/이우용 집사 4부/홍석규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할렐루야(G. F. Handel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 4부/누가복음(Luke) 5:12-16..... Altogether **다같이**

말씀 Message 1, 2, 3, 4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Come & See 미라클(2)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초청의 시간 Altar Call Altogether **다같이**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 4부/죄 짐을 지고 곤하거든(찬327/새538장)

헌금 특송 Offering..... Bethel Orchestra **베델 오케스트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천국부터 지옥까지

Highest 2 Lowest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덴젤 워싱턴 주연 영화 <천국부터 지옥까지>를 기내에서 보았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대부로 '천재의 귀'를 가진 자로 등장하는 주인공 데이빗의 아내는 그의 고등학생인 아들을 납치 했다는 유괴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을 살아서 돌려 받기를 원하면 천칠백오십만불(\$17.5 million)을 가져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으나, 아들을 위해서 무조건 내놓겠다 하고 납치범과 흥정을 시작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일을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유괴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친구가 유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모자를 우연히 바꿔 쓰는 바람에 납치범이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괴된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데이빗 회사의 직원이며, 주인공 데이빗과도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영화는 여기에서 심각한 고민을 관람객에게 던집니다. \$17.5 million에 아들을 찾으려 했던 데이빗은 더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 자기가 돈을 낼 수 없다고 흥정을 끊어 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이 납치된 것을 알게 된 직원은 도저히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납치범과는 흥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친구이자 직장 대표인 데이빗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17.5 million을 대신 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도 아버지 데이빗에게 대신 돈을 내달라 간청할 때, 결국 데이빗은 \$17.5 million을 가지고 납치범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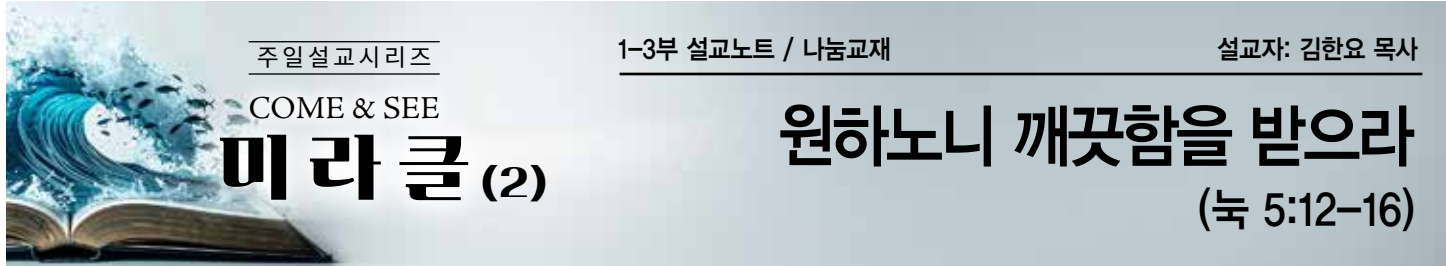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큰 돈을 미련 없이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이지만, 그 친구의 아들을 납치한 범인에게 큰 돈을 똑같은 돈을 내놓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친구 아들을 위해서 돈을 내기로 결정하지만, 그 과정 속에 내 아들이 아닌 이상 기쁘게 돈을 낼 수 없는 이 기적 인간의 심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계속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빚을 지더라도 그 돈을 당연히 준비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똑같은 희생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를 위해 가격을 치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가격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마귀에 납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 없이 아들의 가격을 내놓고 우리를 사십니다.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남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혹은 오랜 만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 watched a movie on the airplane called [Highest 2 Lowest], starring Denzel Washington. The main character David, a record producer with "genius ears," and his wife receive a call from a kidnapper who has abducted their high school son. They were threatened with \$17.5 million ransom if they wanted their son returned alive. It's a lot of money, but they were willing to pay for their son. They began negotiating with the kidnapper and dealing with the situation by reporting it to the police. Then, they discovered that it wasn't their son who was abducted, but it was a friend of their son. The kidnapper mistook him because the kids had switched their caps. Father of the abducted son worked for David's company. He was a longtime friend of David. At this point, the movie throws a profound question to audience. David ends the negotiation saying that he can no longer pay \$17.5 million since it's not his son. But the worker whose son was abducted could not in any way come up with the demand of the kidnapper and was unable to even negotiate. Finally, the father goes to David, his friend and CEO of the company. He pleads with him in tears. He asks for \$17.5 million. Even David's son asks for his father to pay. The story continues that, ultimately, David takes the \$17.5 millions to meet the kidnapper.

He had no reservations giving that kind of money for his son. Although being a friend, he refused to give the abductor that kind of money for his friend's son. Finally, he decides to give the money for the friend's son. However, in the process, we can read the selfishness of mankind where we cannot happily pay anything for someone who is not our son. I kept asking myself during the movie. What would I have done? If it meant saving my own son, I would have raised that money even if it meant going into debt. But for someone else's son, would I have done the same? While asking myself these questions, I reflected on God's heart- the One who paid the price for my sake. Value of life cannot be converted into money, but God paid the price of His Son to purchase us who had been abducted by devil, without hesitation. God does not see us as someone else's son. We are His son.

Today is Easter Sunday. This is Christian's greatest day to praise and celebrate our Savior Jesus who resurrected from death. As we reflect on God the Father who gave up His Son to save us, we come to realize just how precious we are. To those of you who came to church for the very first time or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experience the joy of receiving Jesus, who is more precious than life itself.



1. 예수님 당시 한센병과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참고 구절을 읽고 짐작해 보십시오.(참고/레 13:45-46)

2.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 찾아 보시고, 우리에게도 병들면 이런 죄책감이 몰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지요?(왕하 5:20-27, 민 12:10, 대하 26:19)

3. 우리는 원래 나병이 상징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엡 2:1). 어떻게 나병환자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1) _____ (12절 상)

2) _____ (12절 하)

4. 예수님은 어떻게 나병을 고치십니까? 모두들 금기하던 일을 하시는 모습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13절)

5. 오늘 예수님의 만져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심각한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온전히 낮게 해 주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 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적용하기



사역 소개

50주년 추수감사(B2B)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이곳 베델에서 복음을 배우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함께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2세대 성도들은 더 이상 베델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 전역의 한인 교회들에서 2세대 성도들의 조용한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단절과 소속감의 부재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우고 사랑했던 바로 우리의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책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손을 내밀어

야 할 때입니다.

Back to Bethel(B2B)은 이 현실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걸음으로, 올 가을 Back to Bethel Nigh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베델을 떠난 우리 2세대 자녀들을 따뜻하게 초대하고, 함께 교제하며,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낯짜와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와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부모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직접 이 초대를 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준비한 초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교회에서 직접 따뜻한 초대의 손길을 전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주보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인규 장로



예배 소개

일어 예배

일본인 영혼을 향한 사랑의 통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한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매주 일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어예배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일본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담당 목회자의 인도 아래 매 주일 오후 1시 15분, 임마누엘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저희 일어예배부는 단순히 언어 장벽을 넘는 것을 넘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모든 분께 포근하고 따뜻한 영적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낯선 타국 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신앙의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또한 한인교회 내의 일본어 공동체라는 특징을 살려 다문화 가정 성도님들을 세심하게 지원하

고 있으며, 함께 드리는 예배와 그 후 이어지는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을 풍성히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미리 예배 분위기를 접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songane9087)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은혜로운 예배와 깊이 있는 말씀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일어예배를 통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디었던 만큼 부흥의 씨앗이 되실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합니다.

아울러 예배 시간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실 차일드 케어(Child Care) 봉사자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하오니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본어에 관심이 있거나 주변에 일본어권 이웃을 품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오후 일어예배부로 초대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에서 기쁜 얼굴로 뵈겠습니다!

김민수 집사



Come&See 50 특집 3

베델의 여정

꿈꾸는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십대 때부터 평생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게 해 달라는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로 저를 1989년부터 2021년까지 베델의 반주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음악이라는 작은 재능을 주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반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30년 넘게 베델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수많은 축복과 사랑,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은 제게 가족과 같았고, 함께 땀 흘려 연습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모든 예배와 찬양의 시간들은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저희가 나누는 사랑과 격려,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성가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1995년 손인식 목사님 내외분과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떠났던 중국 연변 베델동산 선교는 저와 제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첫 선교였습니다. 기차로 먼 길을 고생하며 오신 중국 동포들에게 손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감동적인 말씀들은 지금도 생생하며,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도 선교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그립고 보고 싶지만, 손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과 따뜻한 인품은 베델 공동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베델교회를 섬기면서 김한요 목사님을 만난 것

은 또 하나의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목사님의 깊은 영적 해석과 은혜로운 설교 말씀은 저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이 적셔 주셨고, 강력한 말씀들을 통해 많은 회개와 통회의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영상 말씀들을 통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소망과 용기를 심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델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해 온 많은 성도님들께 분배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베델교회가 걸어온 50년 역사 속에 늘 함께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실 줄 굳게 믿습니다.

지지영 권사

간증 투병기

절망이 아닌 은혜의 시간



작년 6월 저는 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고, 미국에 와서 쉽 없이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의 끝이 이 병이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약속을 마음에 붙들며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병이 낫는 것 자체보다 주님과 약속을 이루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9번의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하는 투병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병으로 인해 생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학교와 제자훈련에 참여하며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쌓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저를 다듬고 훈련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양육을 받고,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몸뿐 아니라 제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의사로부터 제 몸에 더 이상 암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통해 저는 약한 저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였고,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살리시고 붙드신 주님을 위해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서혜원 집사

목회자 소개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올해 1월부터 유아부를 섬기게 된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단둘이 10년째 신혼처럼 티격태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 평신도인 남편을 만나 같은 교회에 다녔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에도 회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늦은 결혼과 두 번의 유산으로 자녀는 없지만, 지금은 유아부 아이들을 제 자녀처럼 품고 섬길 수 있어 큰 기쁨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전도사 같은 삶'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원에서 배움의 밑거름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편도 토요일 헵시바 예배에서 드러머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혹시 실수가 있을까 걱정하며 준비하지만,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얼바인으로 이사 와서 2021년부터 베델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되었고, 새가족 교육, 양육반, 베델동산, 셀 모임을 함께하며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을 간식으로 설득하며 예배 시간을 버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경험이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신학대학

지금까지 보내주신 중보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은 전도사

교회학교 간증 대학입학

주님께 맡깁니다!



4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했습니다. 열흘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작게 태어나 큰 수술까지 했던 첫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겪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아이에게 어깨탈골은 너무 치명적 부상이기예, 앞이 깜깜해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부상을 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간 중에 멕시코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지로(!) 시험 공부하는 시간도 확보되었습니다.

너의 삶에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의 노래 중



당장 뛰어가 볼 수도 없는 먼 학교에, 그것도 군인이 되는 사관학교에 간다하니,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아이의 참 부모, 참 주인되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인 우리 손에 이끌려 해온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전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하여 '너의 눈을 들어, 너의 인생을, 너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한다고 매일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은 부모인 나에게도 새롭고 더 친밀한 관계로 초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물에 띄워보낸 것처럼 '내가 부모이니, 내가 보호자이니'하며 움켜쥐었던 손을 놓아 주님께 맡깁니다. 베델교회의 울타리에서 자라나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돌아올 Default home으로 생각하며 어디서든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해진 집사

거의 한달 일찍 태어난 첫 아이가 생후 10주에 탈장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간단하게 끝났지만 수술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사를 오가며

사관학교로 진로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던 즈음, 아이가 레슬링을 하다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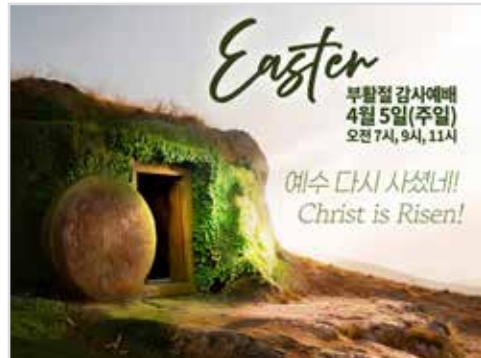
부활절 새생명 축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귀한 VIP와 온 성도님을 새생명 축제에 초대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려 온 VIP분들과 모든 성도님이 부활의 산 소망을 나누고자 세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부활절 계란 부스를 운영합니다. 예배 전후 분당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 모든 성도님과 VIP분들께 부활의 의미를 담은 계란을 한 분당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둘째, VIP 전용 휴게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예배 후 VIP분들은 코트야드에 설치된 전용 휴게 공간으로 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사진 촬영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부활절 새생명 축제의 즐거운 기억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포토존을 운영하니 성도님들 가족 및 VIP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기념 사진을 남기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올러, 이번 축제가 질서 있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베델 성도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동 및 촬영 배려: 예배 후 VIP분들이 먼저 퇴장하실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사진 촬영 또한 VIP 가족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차 공간 협조: 초청받아 오신 VIP분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성도님들 차량은 비전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소망과 꿈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의 삶 속에 부활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Come and See 50.

▶ 날짜: 4월 5일(주일) ▶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월)	4/12: ①부-장지봉	②부-황대경	③부-홍락기	④부-김에스터
	4/19: ①부-한상섭	②부-이양수	③부-홍승평	④부-이주혜
	4/26: ①부-최동주	②부-구윤모	③부-최호경	④부-이지원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4,5월)	4/11: 박영선	4/18: 박철용	4/25: 배진용	5/2: 서덕령
강단꽃(4월)	4/5: 장석우	4/12: 왕혜원	4/19: 김동심, 노성애, 조미리	4/26: 오영옥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흥길(외과), 간호사-박수연 다음주 | 의사-김혜수(소화기 내과), 간호사-장수잔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밀알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He Is Risen!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새생명축제 "참 잘 오셨습니다!"** 새생명축제에 오신 모든 VIP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기다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7면 참고)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사랑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4월 7일(화)~10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사랑목장(조태현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4월 11일(토) 오전 6시, 본당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일시/문의: 4월 8일(수) 저녁 7시 30분, 조광종 집사 (949)706-4168



◆ **102차 베델동산** 102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간: 5월 22일(금)~5월 24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김성균 집사(949) 838-4110



<봉사자>



<참가자>

◆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 선교 신발 도네이션**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뛰었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를 향해 걸어 나아가겠다는 베델의 마음을 담아, 선교사의 발에 편안한 신발을 신겨 드리하고자 합니다. 선교 신발 도네이션에 많은 성도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트야드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박원규 장로(949)433-0557,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교회학교 VBS 조기등록** 2026 VBS 교인을 위한 조기 등록이 오늘 마감합니다. 4월 6일(월)부터는 일반 등록이 시작되오니 베델 교인은 꼭 조기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에도 모든 베델의 자녀들이 VBS를 통해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정 : 영유아유치 VBS 6월 9일(화)~12일(금), K-5 VBS 6월 16일(화)~20일(토) 등록/문의: register.bkc.org , 각 부서 전도사

◆ **선교바자회 예약 주문 안내 및 도네이션** 오는 4월 18일(토) 'Come and Best Buy for Mission'이라는 표어 아래 선교바자회를 준비합니다. 베델 선교를 향한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성도님의 도네이션과 식품 판매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예약 주문은 QR코드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물건과 수량을 미리 주문하시고, 당일 준비된 부스에서 선주문하신 물건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 도네이션도 받으니, 성도님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문의: QR 코드 또는 코트야드 부스, 김응진 집사 (213)215-4977



◆ **예살 청3 공동체 수양회** 예살 청3 공동체가 'Remember Your Creator 창조 아버지'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습니다. 청년의 때에 나와 나의 삶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수양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정/장소: 4월 17일(금)~19(주일), 갈릴리 수양관 문의: 이형석 목사 (714)944-8339

◆ **2026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 및 교사 모집**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원한 여름캠프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교사와 TA로 섬길 분들도 모집합니다.

학기 일정 : 7월 6일(월)~7월 31일(금)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30분(4주, 월-금)

등록기간/등록금 : 4월 6일 오전 9시~4월 24일 오후 9시, \$950

등록처: koreanschool.bkc.org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황수정 집사 (949) 562-5262

◆ **BCA 제3회 'LOGOS' 여름 캠프** 기독교 고전 교육을 바탕으로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언어(문법/작문/복클럽) 등의 아카데미와 PE,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결합한 4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편의를 위해 주 단위 등록도 가능하고 4-5시 애프터스쿨 케어도 있습니다.

대상: 1-6학년 (2026년 가을학기 기준) sibling discount 있습니다.

일시: 7월 6일(월)~31일(금), 오전 9시~오후 4시

문의: BCA 사무실 (949)854-4013



◆ **QTin 4월호 판매** QTin 4월호가 나왔습니다. 매 주일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기도해 주세요** 예살 청1 공동체 수양회가 4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ERMON SERIE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COME & SEE
MIRACLE(2)

I am willing; be clean

(Luke 5:12-16)

1. At the time of Jesus, what was the general attitude toward Hansen's disease and those who had it?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your thoughts. (Ref: Lev 13:45-46)

2. Leprosy was considered God's judgment. When we get sick we can feel guilty ourselves. Have you had such situations? (Ref: 2 Kings 5:20-27, Num 12:10, 2 Chr 26:19)

3. The bible says that we already died to our sins, here symbolized by leprosy. How does the person with leprosy overcome this situation? (Ref: Eph 2:1)

1) _____ (v.12 a)

2) _____ (v.12 b)

4. How does Jesus cure leprosy? When you consider that there was no cure for leprosy but Jesus did cure - how do you feel about this?

5. Trusting in the power of Jesus's touch, did you receive Jesus today? Let's receive Jesus as our Savior, understanding that leprosy of the mind is much more serious than the physical illness.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If you are tired of the load of your sin(Hymn 327)